

혹시, 내가 버린 로또가?

당첨 확인 단말기 '스캔 오류' 잇따라 광주·전남 판매점마다 수차례 '당첨'이 '꽝' 나눔로또, 최근 전국 16곳 단말기 교체

했다"며 "이 같은 일이 최근 2년 새 1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당첨이 되고서도 모르고 지나친 구매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1등 되고도 모르고 지나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더욱 이상한 것은 '단말기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직접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구를 가게에 부착하는 것조차 나눔로또 측과 동종 업계에서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남구에서 로또 판매점을 운영 하는 A(여·50)씨는 "최근 1년간 3~4차례 당첨 여부 확인 과정에서 단말기 오류가 발생했다"며 "간혹 복권에 당첨된 줄 알고서도 재차 확인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난처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로또 복권 판매점은 광주·전남 410개를 포함, 전국에 6천800여개가 영업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로또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오류가 발생, 실제 당첨되고도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광주·전남지역 로또복권 판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복권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점에 따라 적게는 1~2차례, 많게는 10차례 이상 스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다.

문제는 이 같은 스캔 오류로 인해 실제 당첨이 됐으나 당첨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나눔로또는 이 같은 스캔 오류 때문에 최근 3개월 동안 광주·전남 1곳을 포함 전국 복권 판매점 16곳의 단말기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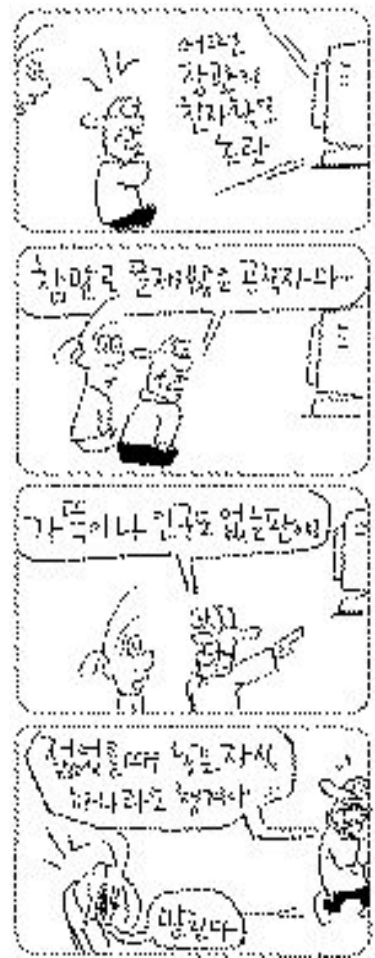
나눔로또 측은 "복권 판매점으로부터 당첨 여부 확인과정의 오류 발생 사례가 접수되면 곧바로 단말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말기가 복권에 담긴 바코드를 제대로 읽지 못해 발생하는 스캔 오류가 당첨금 미수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나눔로또 측은 또 "최근 3개월 동안

스캔 오류가 발생했다는 판매점의 신고가 광주에서 3건이 접수됐으며, 순천을 비롯한 전남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단말기에 이물질이 끼었거나 복권이 훼손되는 등 단순 장애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로또복권 판매업자들은 2년 전 로또복권 주관사가 바뀌면서 복권 발급은 물론 당첨 여부까지 확인하는 단말기 교체와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서 6년째 로또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65)씨는 "며칠 전 50대대 보이는 남성이 준 로또 복권을 단말기에 넣었더니 당첨되지 않은 걸로 나와 '꽝'이라고 알려줬다가 주먹다짐까지

나원침 (7958) 김장두



화순군 공무원들에 정체불명 여론조사

ARS로 군수후보 등 물어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화순군 공무원들 휴대전화로 군수 후보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화순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최근 1주일전부터 군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로 내년도 군수 후보들의 지지성향을 묻는 ARS(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080-'번호로 걸려온 여론조사 항목은 군수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도, 연령, 현역 군수군정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상당수 공무원은 자신의 지지성향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전화를 중간에서 끊거나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조사 전화는 700여명에 달하는 직원 대부분에게 걸려온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A씨는 "1주일 전 휴대전화로 군수후보 지지여부를 묻는 녹음된 음성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매일 1~2차례 전화가 추가로 왔다"며 "직원들은 특정 후보 측에서 공무원들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 같아 불쾌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통상 여론조사는 집 전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번호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화순=정문수기자 lsh@kwangju.co.kr

"이동식 CCTV 효과있네"

광주 북부경찰 우범지역에 10여대 설치

여성 속옷 절도범 검거 ... 설치 확대키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찰이 새로 도입한 이동식 CCTV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30일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이동식 CCTV 10여대를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 단서 확보는 물론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동식 CCTV는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정식과 다르다. 범인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해 침입·도주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동식 CCTV를 새로 설치한 이유는 지난 4월 8일~27일 사이 일어난 동(洞) 주민센터 연쇄절도사건 때문이다. 당시 피해 현장에는 고정식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범인은 이를 교묘히 피해갔다. 고민 끝에 경찰은 이동식 CCTV가 범인 검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 북부청의 협조를 얻어 지역 곳곳에 설치했다.

효과는 컸다. '여성 속옷 상습 절도 사건' 피의자 박모(50)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에 광주 북부 용봉동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북

구 용봉동·문흥동·오치동 일대에서 "여성 속옷이 자주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경찰은 범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범행 예상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박씨는 몰고가던 택시의 조수석 옆거울에 손을 부딪힌 뒤 파스칼 명목으로 2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50대 女 열차 치여 사망

19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화천차진 인근 철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용산을 출발해 광주로 향하던 KTX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기관사 국모(48)씨는 경찰에서 "선로 변에서 사건" 피의자 박모(50)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에 광주 북부 용봉동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북

휴가 군인, 절도범 700m 추격 검거

상나팔



○신병 위로 휴가를 나온 군인이 추격전 끝에 절도미수범을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

○19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목포대대 소속 이희철(사진·20) 이병은 지난 10일 순천시 풍덕동 남부시장 인근에서 차량 절도 용의자인 문모(51)씨를 700m 가량 추격한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

○군인대 후 처음 휴가를 나온 이 이병은 당시 친척집을 방문한 뒤 택시를 타고 복귀하는 길에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라는 외침을 듣고 즉시 차에서 내려 절도 용의자를 붙잡는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

○이 이병은 19일 "절도 용의자를 쫓기 시작할 때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다"며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이병이 용의자를 확실하게 제압하고 있었다"며 불의를 보고 몸을 사리지 않은 이 이병의 군인정신을 칭송.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자해공갈 돈 뜯은 20대 검거

목포경찰은 19일 차량에 고의로 손을 갖다댄 뒤 돈을 뜯어온 강모(21)씨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목포시 상동의 일방통행로에서 황모(47)씨가 몰고가던 택시의 조수석 옆거울에 손을 부딪힌 뒤 파스칼 명목으로 2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tlee@

애완견 다름 동료 폭행

광주서부경찰은 19일 잃어버린 애견 문제를 놓고 틈메이트와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A(여·21)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 서구 상촌동 모 원룸에서 직장 동료인 B(여·22)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B씨의 배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하여" 19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서 송광운 북구청장과 주민 등 200명이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의 노란 리본과 풍선을 들어올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wi@kwangju.co.kr

계좌압류 50대 세무서서 음독 '소동'

나주세무서 2층

19일 오후 2시에 나주 송월동 나주세무서 2층에서 김모(49)씨가 자신의 금융계좌 압류 해제 요구가 받아

들어지지 않자 음독을 시도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경영 악화로 인해 세금 체납액이 5천 만원에 이르자 나주세무서에 의해 금

용계좌를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량에 의해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미량의 농약만 입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퇴원했다. 김씨는 퇴원 후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Advertisement for '대안원' (Daeanwon) featuring '무료 음성커뮤니티' (Free Voice Community) and a phone number 1666-5425.

Advertisement for 'Citi 신용대출' (Citi Credit Loan) with a phone number 010-7167-3838.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Gulakjeon Namgol-dang is here) with a phone number 228-0108.